

## 보건소와 지방의료원의 만성질환 관리체계 연계 구축 방안

김준호\*, 이동원\*\*, 조란\*, 오지영\*, 김연희\*, 서영준\*  
/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지방의료원연합회

1990년대 들어서 정부는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고혈압, 당뇨병을 포함한 거의 모든 만성질환의 유병률과 그로 인한 사망률이 감소하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2000년 이후 보건소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보건행정기능 중심의 보건소만으로는 만성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에 많은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보건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다양한 자원들과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중에서도 공공의료서비스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료원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보건소와 지방의료원간의 효과적인 만성질환관리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34개 지방의료원과 48개 보건소의 설문응답결과 및 3개 지역 보건소 및 지방의료원의 성공적인 연계사례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연계전략을 개발하였다.

전국의 보건소와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 실태 및 두 기관의 연계현황에 관한 조사 결과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전담부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두 기관 모두 절반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당뇨병, 고혈압을 관리대상 만성질환으로 선정하고 있었다. 일부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간에 연계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담당자들의 만족도는 낮았다. 하지만 두 기관 모두 환자전원(transfer), 만성질환교육 사업, 지역 보건 의료정보 공유 등을 중심으로 연계망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연계망을 구축하는데 장애요인으로 보건소는 지방의료원의 관심 부족, 보상체계와 교육의 미흡을, 지방의료원은 전산시스템의 문제, 예산부족, 보상체계와 교육의 미흡을 지적하였다.

현재 보건소와 지방의료원간의 연계를 통한 만성질환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을 조사한 결과 두 기관 모두 만성질환 관리 전담부서를 설

치하고 있었으며, 공식적인 협의체 구성을 통해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환자 관리 중심으로, 지방의료원은 전문인력을 통한 교육 및 진단과 치료를 중심으로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연계하여 수행하고 있었다.

보건소와 지방의료원의 지역적 분포가 다른 현실에서 보편적인 연계모형을 제시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우선 지방의료원이 소재한 지역을 중심으로 보건소와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1. 기관방문환자로부터 지역사회 주민으로 확대

- 보건소와 지방의료원의 역량을 고려할 때, 우선 기관방문환자들을 중심으로 환자전원(transfer), 만성질환교육, 지역보건의료정보 공유 등의 만성질환관리사업을 연계하며, 추후 점진적으로 지역사회 전체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지역사회 요구도에 적합한 만성질환 관리

- 현재의 만성질환관리사업은 “만성질환관리 = 고혈압, 당뇨병관리”로 인식되고 있어 그 외의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는 미흡하다. 지역사회 현황조사 등을 통해 지역 내의 만성질환 실태를 파악하고 국가단위 만성질환관리 사업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요구도를 고려한 만성질환관리 연계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3.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간 공식적 협의체 구성

- 두 기관의 연계를 위해서는 공식적 협의체를 중심으로 투입자원의 공유, 사업계획 수립, 운영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두 기관 뿐만 아니라 상부 감독기관의 지원과, 지역주민들의 보건소 및 지방의료원 이용에 대한 인식 전환이 동시에 필요하다.

4. 지역사회 만성질환관리 종합연계체계 구축

- 보건소와 지방의료원의 협의체를 중심으로 타 의료기관(의과대학 포함), 사회복지단체, 자원봉사단체, 민간협회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은 만성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자원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성을 통한 종합적 만성질환관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